

한국갤럽 Gallup Report 2013/04/16

인사청문회의 도덕성 검증, 나는 통과할 수 있을까?

현재까지 박근혜정부가 내정한 여러 고위 공직 후보들이 각종 의혹에 연루돼 낙마했습니다. 특히, 능력보다는 도덕성 측면의 의혹들이 많이 제기됐는데요.

- 우리 국민들은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?
- 스스로는 도덕성 검증에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?
- 어떤 문제를 용인할 수 있고 어떤 문제는 용인할 수 없을까요?

한국갤럽은 지난 4월 10일부터 11일까지 2일 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604명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의 도덕성 검증에 대한 우리 국민의 생각을 알아보았습니다.

조사 개요

1. 조사기간: 2013년 4월 10~11일(2일간)
2. 표본추출: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
3. 응답방식: 전화조사원 인터뷰
(한국갤럽 전화조사원이 무작위로 생성된 휴대전화 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어 인터뷰)
4. 조사대상: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604명
5. 표본오차: $\pm 4.0\%$ 포인트(95% 신뢰수준)
6. 응답률: 17%
7. 의뢰기관: 한국갤럽 자체조사

주요 결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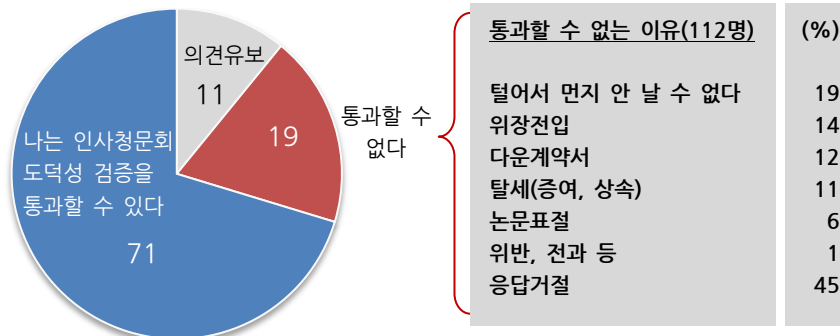
- 인사청문회 도덕성 검증에 본인은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?:
‘통과할 수 없다’ 19%
- 도덕성 검증에서 용납할 수 있는 문제?:
‘위장전입’ 34%, ‘다운계약서’ 23%, ‘논문표절’ 16%
- 용납할 수 없는 문제는?: ‘증여, 상속을 위한 탈세’ 71%, ‘병역’ 50%
- 인사청문회에서 우선적으로 검증할 것으로는?: ‘도덕성’(53%)이 ‘능력’(36%)보다 우선
(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2013년 2월 25~28일 전국 성인 1,216명 조사 결과)

인사청문회 도덕성 검증에 본인은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?: ‘통과할 수 없다’ 19%

한국갤럽이 지난 4월 10일부터 11일까지 2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604명에게 만약 본인이 인사청문회에 나간다면 도덕성 검증을 통과할 수 있을지 여부를 묻은 결과 ‘통과할 수 있다’ 71%, ‘통과할 수 없다’ 19%, ‘모르겠다/응답유보’ 11%로 국민 열 명 중 두 명이 스스로 도덕성 검증에 통과할 수 없다고 고백했다.

본인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답한 사람은 여성(15%)보다 남성(22%)에서 많았고 연령별로는 20/30대(23%, 25%)에서 많고 60세 이상(11%) 고연령대에서 적었다.

▶ 인사청문회 도덕성 검증에 통과할 수 있는가? (단위: %)



구분		표본수(명)	통과할 수 있다	통과할 수 없다	의견유보
전체		604	71	19	11
성별	남성	299	70	22	8
	여성	305	71	15	13
연령별	19~29세	110	72	23	5
	30대	122	71	25	4
	40대	132	71	16	12
	50대	115	71	18	11
	60세 이상	125	69	11	21

질문) 만약 귀하께서 인사청문회에 나간다면 도덕성 검증을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, 통과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?

질문) (통과할 수 없다면) 어떤 문제 때문에 통과하기 어렵습니까? (복수응답)

도덕성 검증을 통과할 수 없다는 사람들(112명)에게 그 이유를 묻은 결과, 잘못이 구체적으로 있다가보다 ‘털어서 먼지 안 날 수 없다/꼬투리 잡힐 수 있다’고 응답한 사람이 19%로 가장 많았고 ‘위장전입’이 14%, ‘다운계약서’ 12%, ‘탈세’ 11%, ‘논문표절’ 6% 순으로 응답됐다.

도덕성 검증에서 용납할 수 있는 문제?: ‘위장전입’ 34%, ‘다운계약서’ 23%, ‘논문표절’ 16%

인사청문회의 도덕성 검증 중 용납할 수 있는 문제를 묻은 결과
‘위장전입’이 34%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‘다운계약서’ 23%, ‘논문표절’ 16%의 순이었다.
‘병역’이나 ‘탈세’는 각각 5% 이하만이 용납할 수 있는 문제로 답했으며
응답자 중 42%는 모든 문제를 용납할 수 없거나 모르겠다는 반응(의견유보)을 보였다.

위장전입이 용납될 수 있다는 응답은 40대(48%)에서 많았고
다운계약서는 40대(30%)와 50대(30%),
논문표절은 20대(25%), 30대(23%)에서 많이 응답돼 용납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
세대 간 인식 차이를 보였다.

▶ 도덕성 검증에서 용납할 수 있는 문제? (단위: %)

구분		표본수 (명)	위장 전입	다운 계약서	논문 표절	병역	탈세 (증여, 상속)	의견유보
전체		604	34	23	16	5	4	42
성별	남성	299	37	26	14	3	5	40
	여성	305	31	19	17	8	3	45
연령별	19~29세	110	22	19	25	5	3	45
	30대	122	38	16	23	7	4	41
	40대	132	48	30	17	4	4	28
	50대	115	33	30	9	7	5	41
	60세 이상	125	26	19	6	4	3	57
도덕성검증 통과여부	통과할 수 있다	427	34	21	15	5	4	44
	통과할 수 없다	112	40	28	23	6	3	28

질문) 인사청문회에서 지적된 여러 문제 중 귀하께서 보시기에 용납할 만하다고
생각하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? 그리고 또 없습니까? (복수응답)

용납할 수 없는 문제는?: ‘탈세’ 71%, ‘병역’ 50%

도덕성 검증에서 용납할 수 없는 문제로는 71%가 ‘탈세’를 지적했고, 그 다음은 ‘병역’ 50%였다.
이외에 ‘위장전입’ 19%, ‘논문표절’ 17%, ‘다운계약서’ 15% 순으로 나타났다.

탈세를 용납할 수 없다는 응답은 특히 30대(79%), 40대(77%)에서 많았다.
‘탈세’는 특히 대(代)를 이어 특혜를 받는다는 의미에서 부정적 인식이 큰 것으로 보인다.

▶ 도덕성 검증에서 용납할 수 없는 문제? (단위: %)

구분		표본수(명)	탈세 (증여, 상속)	병역	위장 전입	논문 표절	다운 계약서	의견유보
전체		604	71	50	19	17	15	9
성별	남성	299	67	51	19	19	15	8
	여성	305	75	48	18	16	14	10
연령별	19~29세	110	72	50	15	14	14	11
	30대	122	<u>79</u>	48	22	17	20	4
	40대	132	<u>77</u>	52	16	18	12	8
	50대	115	64	52	16	20	11	10
	60세 이상	125	62	48	23	18	16	13
도덕성검증 통과여부	통과할 수 있다	427	74	52	20	17	16	7
	통과할 수 없다	112	64	43	18	16	10	14

질문)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하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? 그리고 또 없습니까? (복수응답)

인사청문회에서 우선적으로 검증할 것으로는?: ‘도덕성’(53%)이 ‘능력’(36%)보다 우선

한편, 한국갤럽이 지난 2월 4주(25~28일) 전국 성인 남녀 1,216명에게 인사청문회가 능력과 도덕성 중 어느 것을 우선적으로 검증해야 하는지 질문한 결과, 36%는 ‘능력’을, 53%는 ‘도덕성’을 꼽아 능력보다 도덕성을 중시하는 의견이 많았다. 의견유보는 11%였다.

연령별로는 20대(69%)부터 50대(48%)까지, 특히 저연령일수록 ‘도덕성’을 우선 검증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, 60세 이상에서만 ‘도덕성’(37%)보다 ‘능력’(46%)을 우선 검증 사항으로 꼽았다.

▶ 인사청문회에서 우선 검증할 것은? (단위: %)

구분		표본수(명)	능력	도덕성	의견유보
전체		1,216	36	53	11
성별	남성	602	39	52	9
	여성	614	32	55	13
연령별	19~29세	220	25	<u>69</u>	6
	30대	247	31	<u>60</u>	9
	40대	267	34	53	13
	50대	231	41	48	11
	60세 이상	249	<u>46</u>	37	16

질문) 귀하께서는 인사청문회가 능력과 도덕성 중 어느 것을 우선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?